

#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 계획(6차)

## □ 업무보고 개요

- 목 적 : 경영본부 사업계획 보고
- 일 시 : 2018. 3. 8.(목) 15:00~17:00
- 장 소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9층 대표이사실, TF운영실
- 참 석
  - 서 울 시 : 대표이사 직무대행, 디자인기획팀장
  - 재 단 : 유석윤 단장, 이상묵 팀장, 지서해 팀장, 박내선 팀장, TF팀

## ○ 진행순서

연번	시간	내용	비고
1	15:00~15:30	결재 건 보고	서울시, 단장, 기획경영팀장, 경영지원팀장
2	15:30~16:10	경영본부 보고	이상묵 팀장, 지서해 팀장, 박내선 팀장
3	16:10~16:30	강 평	-
4	16:30~17:00	혁신TF 운영 중간보고	혁신 TF 전원

## □ 회의록

### 〈기획경영팀〉

- 경영본부 전략으로 핵심과제 내용에 '예측가능한 조직' 이란 말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음. 아주 기본적으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임.
- 패션봉제사업(출연금)은 경제진흥본부로 편성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왜 안되었나?
  - 운영 조례에 재단 업무 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재정부터 하고 2019년도부터 경제진흥본부에 편성하기로 함
- 보고 자료 중 DDP'장기콘텐츠' 는 용어가 잘못된 것 같음. 자체전시로 바뀌어야 함.
- 사업 추진은 계획에 근거해서 추진하길 바람
- MOU체결은 실질적으로 업무할 건만 계획 할 것. 핸드 웨이크식 체결은 지양할 것.
- 교육은 해외냐 아니냐가 중요 한 것이 아님. 교육 체계도의 공통역량은 제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인가? 계층역량이 중요한데,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도출이 되어야 한다. 조직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직원이 원하는 교육이 있을 것이고, 성장하면서 필요한 교육이 있을 것이다. 교육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디자인재단 구성원이 필요한 역량요소가 나와야 그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 성취감, 역량증진 할 수 있는 교육필요하다. 외부 업체에 운영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장기적으로 계획 할 것.

## 〈경영지원팀〉

- 2017년 공기업과에서 내린 보수 가이드라인 인건비 운영비율 얼마였나?  
→ 3.5%였는데, 협약해서 5.73%로 확대 됨. 연차사용을 추진하고, 휴일근무 수당등을 줄임.

## 〈홍보마케팅팀〉

- 홍보마케팅팀 직원은 몇 명이며, 전문가는 몇 명인가?  
→ 9명임. 팀장본인은 조선일보, 아모레퍼시픽 등 관련 경력 10년이 있고, 김민희 책임은 설립부터 홍보만 담당했었음.
- 재단 SNS채널은 몇 개인가?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 작년부터 국/영 같이 운영 중임.
- 별도로 용역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는지? 9명이 모두 담당자인 것인지?  
→ 나머지는 대관업무 담당임, 1명이 휴직 중이라, 홍보는 1명이 담당함. 홍보업무는 사업부서에서 각자 진행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디키디키’도 이 팀에서 담당하는가? 업무분장이 뒤죽박죽인 것 같음.  
→ 그래서 좀 더 운영의 시너지 효과가 있긴 함.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마케팅 유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  
→ 영업을 하고 있음. 브로슈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 중. 과거 고객이 계속 이어지기도 함.  
  
(단장) 마케팅이 필요한데, 공공기관 이다보니 개관 초기에 예산 활용이 어려웠어서 5억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음. 앞으로는 쓸 수 있도록 해야 함. 대관 3년치 미리 다 예약되어 있음. 그래서 따로 영업 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알림관은 유치해야 할 상황임.

- 디자인전시관 하루 대관료는 얼마인가?  
→ 하루 150만원 정도임.
- 영문 브로슈어는 내용 잘 확인 된 것인가? 예전에 서울시 행사 홍보물에  
직역되어 있었던 결과물 보니까, 잘못(시장 취임사가) 직영된 경우가  
있었다.
- 코리아타임즈 통해 감수했음.

### 〈국제협력팀〉

- 글로벌네트워크 DB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단 해외 네트워크 정보 자산화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됨. 개인자산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함.
-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는지? 사업을 없애지는 못하고 이름만  
살려 놓은 것인 듯함.  
→ 초기에 예산 1억이었으나 지금도 하고 있음. 올해 6월 폴란드에서  
예정임. 서울시에서 올해 참석 하여 디자인관련 발표 진행하면 좋겠음.  
디자인정책과와 이야기 해 보겠음.
- 창의도시는 180개나 되는지?  
→ 가입 수가 작년부터 폭증하였음.
- 글로벌뉴스레터는 중요한 것 같음. 잘 진행하시길 바람.
- 국외공무출장 예산이 얼마나 되나?  
→ 우수한 내용의 출장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유해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 하우스비전 행사는 다른 행사와 차별화 되나? 디자인위크 컨퍼런스 행사같은..  
→ 하우스비전은 내용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라 다른 일회성 단순 행사와는 다름.